

아시아지역의 유기농산물 생산과 교역동향

서종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목 차>

- | | |
|----------------------------|----------------------------|
| I. 서론 | III. 지역내 유기농산물 수입국가의 시장 구조 |
| II. 주요국가의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과 수출 | IV. 아시아 지역 유기농업 전망과 과제 |

I. 서론

아시아 지역은 오랜 역사적인 유기농업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최근까지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유기농업을 전통적인 농업방식으로 간주하고 부족한 식량문제의 해결 수단으로 적합한 농업생산 방식이 아닌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환경과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유기농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는 다른 농업기술과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인 조건이 성숙되지 않으면 유기농업도 발전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유기농업 확산은 두 가지 힘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이윤추구적 동기에 의한 경제적 요인이며, 다음으로는 환경과피를 최소화하여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안전한 식품의 공급을 요구하는 생명·환경운동적 요인이다. 전자는 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이나 상품거래를 담당하는 유통상인들의 관심 사항이며, 후자는 소비자계층(국민전체)의 관심사항이다.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은 최근까지 환경보다는 경제개발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농업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환경 친화적인 농업개발 방식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시장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농업발전의 전략수단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낮은 기술수준과 사회간접 자본 및 내수기반의 취약 등으로 유기농업의 확산은 빠르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WTO체제의 출범으로 앞으로 국제간 농산물교역이 보다 확대되는 추세 하에서 유기농산물의 교역도 확대될 전망이다. 여기에, 유기농산물에 대한 국제기준(CODEX)이 이미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국제간 거래는 과거보다 용이해 질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유기농업도 비교우위의 경제논리에 의하여 국제적인 분업체제가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교역도 증가할 전망이다.

본 논문은 이상과 같은 문제인식 하에서 아시아지역 유기농업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장래를 전망해 보기 위한 시도의 일부이다. 그래서 우선 '98년 이후 4차에 걸친 아시아지역 친환경·유기농업에 관한 ESCAP(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회의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유기농산물의 생산과 교역실태를 파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국간의 친환경·유기농에 관한 통계자료의 불일치는 물론이고 구체적인 자료출처가 제시

되지 않아 논문으로서의 완결성을 결여한 초보적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시아 지역의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생산 및 교역에 관한 정보가 전무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자료 및 정보제공 차원에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이 아시아지역의 유기농업을 이해하는데 다소나마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II. 주요 국가의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과 수출

아시아 국가들의 유기농산물 생산은 크게 두그룹으로 대별된다. 한국, 중국, 일본으로 대표되는 동북아시아 국가(선진그룹)는 태국, 인도 등 동남아시아 국가(후진그룹)와 유기농업의 면적이나 생산양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전자는 후자에 비하여 생산량과 면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으로 순수 유기농산물 보다는 저농약, 무농약 농산물의 비중이 큰 국가들이다. 반면 후자는 유기농산물의 생산액 비중이 전체 농산물 생산액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나 동북아 지역보다는 순수 유기농산물의 생산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전체국가 중 중국과 일본은 각각 연간 생산액이 약 4조원(32억불)과 1조원(1,000억엔) 수준이며 우리 나라와 더불어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연간 생산액이 1,000억원을 넘는 국가들이다(표 1).

<표 1> 아시아 국가의 친환경·유기농산물¹⁾ 생산량(액) 추정

국가	기준연도	생산량	생산액	비고
한국	1999년	27,642M/T	1,500~2,000 ²⁾ 억 원	-
중국	1999년	1,100만t	32억불	-
일본	1999년	총농업생산량의 1% 수준	1,000억엔 내외	-
인도	2000년	108M/T	770천불	외국기관인증 순수유기농산물만임.
태국	2000년	231M/T	185천불	"
인도네시아	2000년	252,423M/T	5,223천불	"
비율빈	2000년	292M/T	391천불	"
말레이시아	2000년	345M/T	687천불	"

- 주 1) 친환경·유기농산물 :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산물로 국한
 2) 생산품목, 생산면적 및 생산량을 고려하여 추정

그 외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은 연간 생산액이 100억원 미만 수준이다(인도의 경우 저농약, 무농약 농산물까지 합칠 경우 이보다 높은 수준일 것으로 판단되나 자료의 제약으로 순수 유기농산물 생산액만 고려되었다.). 연간 판매증가율은 중국과 인도의 경우 100%를 상회하고 있으나 그 외 국가들은 14~36% 수준에 머물고 있다(표 2). 여기에 제시된 분석 자료

의 조사기간('99 ~ 2000년)이 외환위기로 지역경제가 크게 침체된 시기임을 감안할 때, 아시아 지역에서의 유기농업은 수요측면에서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표 2> 아시아 국가의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연평균 판매액 증가율 추정

국가	기준기간	연평균 판매 증가율(%)
한국	'98~2000	30
중국	'99~2000	100
일본	NA	NA
인도	'99~2000	400
태국	'99~2000	17
인도네시아	'99~2000	11
비올빈	'99~2000	36
말레이시아	'99~2000	14

친환경·유기농산물의 판매중 내수와 수출을 비교해 보면 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는 주로 내수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중국, 태국, 비올빈은 해외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표 3).

<표 3> 아시아 국가의 친환경·유기농산물의 판매액 중 내수 및 수출비중

국 가	기준년도	수출비중(%)	내수비중(%)
한국	1999년	0	100
중국	2000년	65	35
일본	1999년	0	100
인도	2000년	12	88
태국	2000년	98	2
인도네시아	2000년	0	100
비올빈	2000년	90	10
말레이시아	2000년	1	99

주요 수출지역은 유럽, 미국 및 일본 등 선진국가이며 수출품목은 차, 커피, 감초 등 기호성 농산물과 쌀, 땅콩, 감자전분 등 곡물류, 그리고 양배추, 고사리, 양파, 당근, 바나나 등 신선채소와 과일류이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꿀을 제외한 여타의 축산물이 수출 유기농산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이다. 아시아지역에서의 유기축산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측면이다.

<표 4> 아시아 국가의 유기농산물 수출지역과 품목유형

국 가	수 출 지 역	품 목 유 형
중국	유럽(독일), 미국, 일본	죽순, 고사리, 차, 감초, 콩, 땅콩, 감자전분
태국	유럽	쌀, 양배추, 채두, 차
비올빈	유럽, 일본	쌀, 양파, 당근, 바나나, 마늘
말레이시아	유럽, 미국	당근, 쌀, 꿀

유기농산물의 인증제도를 보면,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국가인증 대신 민간 인증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수출농산물의 경우에는 중국과 태국을 제외하고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인 인증단체가 수입업체의 요청에 의하여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표 5)

<표 5> 주요 아시아 국가의 유기농산물 표시 및 인증제도 비교

국 가	내 수	수 출
한 국	국가인증	국가인증
중 국	국가인증(중국녹색식품개발센터)	유기농산물개발센터 (OFDC ; IFOAM 인정기관)
일 본	정부인정 민간기구(약30개) (정부규정에 의거 유기농 상표표기 의무화)	-
인 도	다수의 비공인 NGO단체	외국인증단체
태 국	민간인증(태국유기농업인증: ACT)	ACT
인도네시아	NGO들이 준비중	외국인증단체
비올빈	NGO들이 준비중	외국인증단체
말레이시아	외국인증단체	외국인증단체

III. 지역내 유기농산물 수입국가의 시장 구조 : 일본의 사례

아시아 지역중 유기농산물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일본, 홍콩 및 싱가포르, 중국이다. 이중 일본은 높은 국민소득과 1억인 이상의 많은 소비 인구로 인하여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 특유의 국내 유통 조직과 소비자들의 의식구조를 감안할 때 가까운 장래에 일본이 매년 많은 유기농산물(특히 가공하지 않은 1차 농산물)을 수입할 것으로 전망되지 않는다.

일본은 1970년대 초부터 유기농산물의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운동이 시작되어 현재에는 일본 특유의 농산물유통 방식인 생산자-소비자 제휴(Teikei System)까지 발전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전국적인 체인망을 갖춘 슈퍼마켓이나 레스토랑에서까지 유기농산물의 거래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유기농산물의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 내에서 유기농산물이 거래되는 유통채널은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으며, 약 100만의 소비자가구(전체 가구의 약 2.5%)가 이를 통하여 유기농산물을 구입하고 있다.

가장 큰 유통채널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Consumer Co-op)을 통한 거래로서 약 70만의 소비자 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사회운동단체가 주체가 되어 소비자 가정까지 직접 배달하는 직거래 체제로서 약 20만 소비자 가구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제 3의 유통채널 유형은 전국적인 체인을 갖는 도·소매 조직으로서 약 15만 소비자 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에는 전국적인 체인망을 갖춘 대규모 슈퍼마켓과 전문음식점에서도 유기농산물을 취급하고 있다.

<표 6> 일본의 유기농산물 유통채널과 참여 소비자 가구 추정

유 형	단체명	참여소비자 가구수(추정)
생 협	생활클럽생협, 그린생협연합 등	7,000 가구
가정배달 직거래	레디시-보야, 대지를 지키는 모임 등 운동단체	2,000 가구
도·소매 조직	폴란(Polan), 내츄럴하우스 등	1,500 가구
계	-	1,000 (전체 소비자가구의 약 2.5%)

일본 소비자들의 유기농산물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나, 수입 유기농산물에 대한 반응은 소극적이다. 전체 소비자의 80% 이상이 유기농산물의 구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약 60%의 소비자들이 유기농산물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앞으로 유기농산물의 구입량을 현수준 유지하거나, 확대하겠다는 가구가 전체 소비자 가구의 약 90% 수준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유기농산물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외국산 유기농산물의 경우 전체 가구의 약 20%가 구입경험이 있으며, 앞으로 구입하겠다는 가구가 20%, 외국산이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소비자가구가 약 45%, 수입 되더라도 구입하지 않겠다는 가구가 약 25%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일본의 소비자들은 국산보다는 외국산에 대하여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비자들이 제시하는 외국산 유기농산물 구입조건을 우선 순위를 보면, ① 신뢰할 수 있는 상품표기(labeling), ② 구입의 편의성, ③ 낮은 구입가격을 들 수 있으며; 구입하지 않는 이유의 우선 순위로는, ① 수확 후 가공-저장-수송과정에서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 ② 국산 유기농산물 애용, ③ 신뢰 할 수 없는 상품표기, ④ 대면하기 어려운 유기농산물 생산자 순이다. 이를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유기농산물을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상품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IV. 아시아 지역 유기농업 전망과 과제

서구지역에 비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유기농업은 발전의 초기단계 수준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유기농산물의 비중은 전체 농산물 생산액의 1%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높은 인구 밀도를 감안할 때 유기농업의 급속한 확산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는 특히, 곡물 생산에서 그러하다. 식량의 양적확보가 질적확보 보다 우선 순위가 높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 일본 등 동북아 몇 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개발도상국가들로서 풍부한 농촌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어 유기농업에 유리하다. 또한, 서구지역에서 수출수요가 증가할 전망임을 감안할 때 제한된 수준에서의 유기농업 - 특히, 채소, 과일, 기호 농산물 생산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중국, 태국 및 비올빈 등에서는 정부가 유기농업을 수출전략산업 차원으로 육성하고자 계획하고 있어 이들 국가에서의 유기농업이 크게 성장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생산기술 등 취약한 사회간접자본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유기농업 발전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반여건의 강·약점과 기회·위협요인을 정리해 보면 <표 7>과 같다.

<표 7> 아시아지역 유기농업 발전의 강·약점과 제약요인(SWOT)

<u>강점(Strength)</u>	<u>약점(Weakness)</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소비자들의 환경 및 건강관심 확산 ◦ 높은 수익성(생산·판매가 성공적인 경우) ◦ 유기농산물의 가치에 대한 소비자 인식 확산 ◦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신뢰구축과 직거래 확산 ◦ 엄격한 품질인증제도의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수준 낙후 ◦ 수송, 가공 등 하부구조 취약 ◦ 농업의 보수성 ◦ 시장 정보의 제약 ◦ 높은 판매가격으로 인한 다수의 소비확보 곤란
<u>기회요인(Opportunity)</u>	<u>위협요인(Threats)</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수요의 확대 전망 ◦ 소비자들의 건강과 식품 안전성 관심 증대 ◦ 유기농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확대 추세 ◦ 생산자↔유통업자↔소비자간의 신뢰관계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본적인 재해 및 병충해 대책 미흡 ◦ 가짜 유기농산물의 유통 ◦ 과일 생산에 따른 시장 가격하락 ◦ 공정거래의 미정착

아시아 유기농업의 강점과 기회의 요인으로는 ① 국내외 소비자들의 환경 및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② 유기농산물의 가치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확산, ③ 엄격한 품질인증제도의 정착과 함께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간의 신뢰관계 확산을 꼽을 수 있다.

약점과 위협요인으로는 ①생산기술, 수송, 가공 등 유기농업의 하부구조 취약, ② 가짜 유기농산물의 유통 등 공정거래의 미정착, 그리고 ③ 시장정보의 제약으로 인한 시장가격의

불안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약점과 제약요인은 농민이나 소비자 개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각국의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따르지 않는 한 유기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참 고 문 헌

- 서종혁, “아·태 지역의 친환경 농업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구상과 한국의 유기농업”, 「한국 유기농업학회」, 동계학술발표회 발표논문, 2000. 12.
- 오호성 외, 저투입 환경농산물의 수요개발에 관한 연구, 농림부, 2000. 12.
- 윤석원 외, 유기농산물 생산·소비·유통·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농림부, 1999. 4.
- ESCAP, Progress Report of Regional Conference on Sustainable Agriculture and Green Farming, June. 1998., Oct. 2000., Nov. 2000.
- Humus Consultancy, Organic Asia, Regional Market Survey Report, Feb. 2001.